

가부장 사회 여성의식의 분열과 울프의 글쓰기: 『댈러웨이 부인』, 「소개」, 「조상들」, 「하나의 요약」을 중심으로*

진 명 희

I. 들어가는 말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의 추구, 즉 삶과 죽음의 문제는 평생동안 그녀의 의식을 괴롭혔으며, 결국 그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떠나게 만든 강박관념이었다. 삶의 진실, 리얼리티, 자아의 진정성에 대한 울프의 의식은 상류계층에 속하는 지적인 예술가로서 가부장 사회에 안존할 수 없는 자의식 강한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강렬했다. 독자적인 자아의 탐구를 위해 내부세계로 침잠하는 유아론적 삶의 태도와, 타자와 공유하며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인 삶의 태도를 겸비하고자 하는 울프는 자아와 타자의 개체성이 유지되는 결합의 상태를 궁극적으로 삶과 예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한다. 이는 니체가 『비극의 탄생』(*The Birth of Tragedy*)에서 종족의 번식이 양성에 의존하는 생의 원리인 것처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충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의 두 대조되는 특성의 대립과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다. 니체가 말하는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예술의 원리뿐만 아니라, 삶의 대별되는 두 가지 원칙으로, 아폴로적인 것이 ‘개별성의 원리’(Principle of Individuality)라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참여의 원리’(Principle of Participation)이다.

울프는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서 피터 월쉬(Peter Walsh)의 명상을 통해, 삶의 기복을 뜻하는 파도와 물고기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간 영혼, 즉 자아의 양면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 영혼, 우리 자아에 대한 진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우리 자아는 물고기처럼 깊은 바다 속에 살며 어두컴컴한 곳들을 바쁘게 움직이고 거대한 해초들의 줄기 사이를 헤치고 지나다니며, 햇빛이 흔들리는 공간 위로 그리고 계속해서 차갑고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표면 위로 솟아올라 바람에 잔물결이 이는 파도 위에서 장난치며 논다. 즉 우리 자아는 잠담을 나누며, 스치고 지나가고, 문지르고, 스스로 빛을 발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지닌다.¹⁾

바다 밑 어두운 곳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같은 내적인 자아와 더불어 이 바다를 치솟고 올라와 파도를 타고 놀며 잠담을 나누는 표면적 삶을 사는 외적인 자아의 두 가지 모습은 클러리서(Clarissa Dalloway)의 삶에 대한 양면적 태도의 반영이다. 즉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피터를 거절하고 리처드 댈러웨이(Richard Dalloway)와 결혼한 클러리서는 또한 ‘삶에 대한 봉헌’의 의미를 지닌 파티를 즐겨 개최하며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수행한다. 울프는 정치가의 부인인 클러리서가 남성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독자적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영혼의 고유영역’인 자신만의 다락방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다양한 인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이 상호 교류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파티를 개최하는 양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울프는 장편 『댈러웨이 부인』이 발간된 1925년을 전후하여 그녀의 파티에 참석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몇 편의 단편들을 창작하였는데, 인간 삶과 사회의

1) Virginia Woolf, *Mrs Dalloway*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25;1990), p.161. 앞으로 작품 인용은 이 판본에 의하며 인용문 뒤에 쪽수만 표시함.

축소판인 파티라는 통합적 장치를 통해 갈등하고 긴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의식을 드러낸다. 울프는 여러 사회 계층과 양상이 공존하는 파티라는 보다 편리하고 제한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휘황찬란한 광채와 호화로운 속에 가려있는, 또한 그로 인해 더욱 강렬하게 자각되는 개인 내면의 고통과 중압감을 표출한다.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은 건강이며, 진리이며, 행복이다”(“Montaigne” 93)라고 주장하는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에 단지 육체적으로만 함께 있을 뿐 상호 정신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불만스런 자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탐색하게 한다. 신비스런 황홀경과 무질서와 혼돈이 존재하는 디오니소스 축제와 같은 고양된 분위기의 파티에서 상호 이해가 결여된 개인들은 타인과 대별되는 자신의 고통을 더욱 절실히 느끼며, 내면의식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존재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델러웨이 부인』에서 클러리서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보여주는 삶에 대한 모호하고 모순적인 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식의 분열과 울프의 글쓰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속에 삶, 죽음, 정신착란 등 작가 자신의 경험을 충직결시킨 울프는 타인의 의지를 말살시키는 강압적 세력들로 인해 자살을 행하는 셉티머스 스미스(Septimus Smith)라는 인물을 통해 억압적 사회체제를 비판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충족시킨다(*A Writer's Diary* 56). 그러나 여성론적 시각에서 분석할 때, 『델러웨이 부인』은 전혀 생소한 인물인 셉티머스와 일체감을 느끼는 클러리서를 통해 남성중심 권위주의 사회에 안존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개체성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상류계급 여성의 분열된 자아의 실체를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모든 압제적인 권위에 대항한 셉티머스의 죽음은 남성중심사회에서 ‘개인 영혼의 고유영역’을 지키려는 클러리서의 여성적 삶의 고통을 독자에게 심화시켜 표현한다. 울프는 1928년 발간한 모던 라이브러리판 『델러웨이 부인』의 ‘서문’에서 초판본에서 존재가 없던 셉티머스는 나중에야 델러웨이 부인의 ‘더블’로 계획되며, 본래는 델러웨이 부인이 자살하거나 파티 끝 무렵에 죽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vi). 즉 독자에게 전달되는 클러리서의 모순되고 분리된 주체양상은 주인공의 성격묘사에 대한 작가의 실패가 아니라, 기존 문화와 사회에 주변인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는 여성작가의 의도적인 글쓰기 전략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제한된 자의식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내가 되어 타인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의미를

지니는 파티관련 단편 중 「소개」(“The Introduction”), 「조상들」(“Ancestors”), 「하나의 요약」(“A Summing Up”)을 중심으로 각 작품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고립되고 분열된 여성의식을 탐색함으로써, 『델러웨이 부인』과 세 단편들이 갖는 주제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울프는 이 세 단편에서 파티란 단어가 어원적으로 갖는 이중의 의미, 즉 회합, 모임과 동시에 개별자, 뿔이런 양의성을 보여준다. 이 단편의 주인공들에게 파티는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축제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고독한 내면을 확인하는 기회이며 불행한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II. 『델러웨이 부인』

『델러웨이 부인』은 외형상 1923년 6월 중순 어느 하루, 국회의원 부인 클러리서 델러웨이의 저녁 파티와 정신분열증을 지닌 전직 군인 셉티머스 스미스의 죽음을 향한 이중적인 플롯을 꾀한다. 독창적인 구상에 작품을 적합하게 짜 맞추고자 울프는 등장인물들 뒤에 있는 ‘과거’라는 동굴 속으로 ‘굴을 뚫는 과정’과 같은 독특한 서술기법을 발휘하여 그들을 서로 연결시킨다(*A Writer's Diary* 60). 따라서 『델러웨이 부인』에는 클러리서의 내면의식과 주변 인물들에 의한 비판의식이 병행하여 전개되며, 등장인물들의 현재 의식 속에는 과거 30여 년 전 클러리서의 삶이 반복적으로 함께 엮여 있다. 이러한 서술기법으로 인해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는 『델러웨이 부인』을 “등장인물들의 현재의 삶 속에 과거가 소생하는 소설”(Miller 189)로 평가한다. 또한 전통적인 소설 서술 방식인 삼인칭 과거시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종종 등장인물의 내면독백과 화자의 서술 묘사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마키코 미노우-핑크니(Makiko Minow-Pinkney)는 울프의 이러한 실험적 서술 특성을 부권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전복으로, 즉 작가가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소설에 대한 ‘권위적인 화자’의 자세를 거부한 결과로 파악한다(Minow-Pinkney 58-59).

작품 시작에서 울프는 저녁파티를 위해 꽃을 사러 나온 클러리서의 종달새같이 즐거운 활기찬 현재의식을 곧바로 과거 부어톤(Bourton)에서의 즐거웠던 삶과 연결시킨다. 과거 경험과 느낌이 현재 의식과 뒤섞인 클러리서 델러웨이는 부어

톤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넘실대는 파도 물결같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던 18세의 클러리서 패리(Parry)가 된다. 울프는 ‘처박다(plunge)’라는 단어나 “끔찍한 어떤 일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3)와 같은 구절을 통해 클러리서와 셉티머스를 연결시키며 독자들에게 셉티머스의 자살 장면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에밀리 켄슨(Emily Jensen)은 셉티머스가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처박다’라는 단어를 클러리서가 현재의 유쾌한 삶을 대하는 모습이나 부어톤에서 상쾌한 대기에 접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반복하여 사용한 점을 지적하여, 셉티머스의 자살이나 클러리서가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뛰어드는 방법에 차이가 없이 둘 다 자멸적이라고 평한다(Jensen, 168). 또한 상승과 하강의 울동을 보이는 ‘들뜸(lark)’과 ‘처박음(plunge)’의 대비에 의해 작가는 클러리서의 삶에 대한 ‘치솟는 활력감’과 ‘움츠러드는 절망감’의 이중적인 태도를 전조한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주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알리는 빅 벤(Big Ben)의 종소리를 들으며 클러리서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삶에 대한 사랑과 애착에 대해 명상한다. 삶의 매 순간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클러리서는 오늘 저녁에도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일”(5), 즉 피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터를 좋아하는 그녀를 ‘완벽한 안주인’이라 비난하며, “그녀의 영혼의 결함”(7)에만 관심을 갖던 피터를 상기하며, 결혼 생활의 자유와 독자성의 필요를 인식한다. “언제나 같은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약간의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약간의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리차드는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주었다”(7-8). 결혼 생활에서 상호 자아존중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클러리서는 타인의 삶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삶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불안한 느낌과 비판적 생각을 갖는 클러리서는 종종 자신이 삶의 모든 의미를 파헤치고자 하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바깥에 서서 그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의식의 분열상태를 경험한다. 사실 현재 가정주부로서 『등대로』(To the Lighthouse)의 램지 부인(Mrs. Ramsay)처럼 역사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재능만을 지닌 클러리서는 여성이 남성중심의 기존 문화 안팎에서 느끼는 의식의 분열 현상을 겪는 것이다 (A Room of One's Own 146 참고). 인간의 삶이나 개인의 정체성이 마음대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간단명료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클러리서는 “그녀는 피터에 대해 말하지 않으리다. 그녀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라고”(8-9) 구절에서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삶에 대해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자 한다.

과거에 대한 추억은 클러리서에게 인간의 필멸성과 타인이나 주변의 사물에 의해 완성되고 영속화되는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해 명상하게 한다. 존재의 편재성과 영혼의 불후성을 믿는 클러리서는 더욱 현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한다. 죽은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타인이나 자연물상에 부여되어 계속 존속되리라는 “초월적 견해”(153)를 지닌 클러리서는 그녀 자신이 안개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한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심벨린』(Cymbeline)에서 거짓으로 죽은 이모겐(Imogen)을 위한 장송곡으로 불려졌던 제4막 2장의 다음 구절은 죽음의 두려움을 잊고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클러리서의 내면의식을 반영한다: “태양의 열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격노한 겨울의 광란도.”(9)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손에 받아 권 채 바자회를 열었던 벅스버러 여사(Lady Bexborough)처럼, “용기와 인내력, 완벽하게 깨끗하고 극기적인 자세”(9-10)로 비극적인 삶에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나 스스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 왔음을 깨닫는 클러리서는 벅스버러 여사처럼 당당하고 위엄 있는 자신의 다른 삶을 갈망해 본다. 이처럼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클러리서의 내면의식에는 사실 그녀가 남편 리처드와의 결혼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던 독자적 존재감을 점점 상실해 간다는 불안이 깃들여 있다.

그녀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결혼하는 일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갖는 일도 없이,... , 델러웨이 부인이 된 이 존재, 이제는 더 이상 클러리서 조차 아니다. 리처드 델러웨이 부인이 된 이 존재. (10-11)

남성중심 사회에서 정치가 부인인 클러리서는 독자성을 상실한 채 자신의 현존재를 델러웨이 부인으로 대변할 뿐이다. 사실 올프가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는 ‘영혼의 고유영역’을 간직하고자 하는 여주인공 클러리서의 의식을 다루는 이 작품 제목을 그녀의 결혼 후 이름인 『델러웨이 부인』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부터 독자는 근본적인 아이러니를 감지할 수 있다. 각자의 독자성을 추구하여 피터가 아닌 리처드와 결혼한 클러리서는 사실상 여성의 정체성이 딸, 어머니, 아내로만

인정되는 가부장 사회에서 결혼과 동시에 클러리서 페리라는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셈이다.

이러한 클러리서의 공허한 내면의식은 딸 엘리자베스(Elizabeth)의 가정교사 킬먼 양(Miss Kilman)을 향한 거부감으로 전이된다. 지나치게 가난에 찌들어 비뚤린 사고방식을 지닌 광신자인 킬먼은 같이 있으면 오 분도 못되어 자신은 우월하고 상대방은 열등하다는 인식을 주는 파괴적 존재이다. 미노우-핑크니(73)나 필리스 로즈(Phyllis Rose 147)의 지적처럼 킬먼은 남성화된 여성의 한 유형이다. 울프는 클러리서에게 ‘지배자’요 ‘폭군’같은 존재인 킬먼의 묘사에 이어, 셉티머스 스미스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의 우상을 태운 자동차 행렬장면을 서술한다. 누구를 태웠는지 정체를 드러냄 없이 격렬한 폭발음을 내며 지나가는 자동차는 런던 시민들이 경건한 정신을 눈가림 당하고, 입을 딱 벌린 채 멍청히 서 있게 만든다. 자동차에 눈이 팔린 런던 시민들의 우스꽝스런 모습은 권위 있는 세력에 의해 자율적인 의지를 말살 당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인 레지아 스미스(Rezia Smith)에게 각자의 개체성을 상실한 한낱 ‘군중’으로 인식된다. 이기심에서 유발된 전쟁으로 셉티머스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한 압제와 권위의 상징인 이 “하나의 중심점”은 군중들을 꼭두각시처럼 만들며, 이에 대한 셉티머스의 반응은 죽음의식의 전조를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블라인드를 내린 채 자동차가 멈췄고, 블라인드 위에는 나무 같은 이상한 문양이 있다고 셉티머스는 생각했다. 마치 어떤 공포가 거의 표면에 올라와 확 타오르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있는 하나의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한데 모이는 것은 그를 두렵게 하였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떨며 확 타오르려고 위협하였다.(15)

울프는 자동차에 지나치게 충성심을 보이는 런던 시민들을 통해 사회권위층의 위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영국인들의 편협한 국수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상류층 젊은이들은 “그들의 군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대포주동이 속이라도 당장 뛰어든 자세를 취한다”(18). 가난한 서민중의 하나로 삶에 무감각한 보울리 씨(Mr. Bowley)는 영국인이라는 끝없는 자긍심에 휩싸여, 모자를 번쩍 들어 자동차 행렬에 존경을 표한다. 자동차 행렬에 모아졌던 군중의 시선은 비행기의 폭음에 의해 다시 한곳에 집중된다. 자동차 행렬처럼 비행기는 긴장한 코츠 부인(Mrs.

Coates)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또한 브레츨리 부인(Mrs. Bletchley)은 몽유병자처럼 공중에 쓰인 과자광고 글자를 따라 읽게 만든 후 사라져버린다 (20). 하브나 리히터(Harvena Richter)의 지적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는 개인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시켜 군중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이 작품의 두 가지 주제인 “사회권위”(car)와 “의사소통의 필요성”(airplane)에 대한 대중 의식의 반응을 나타낸다(Richter 53). 런던 시민들의 시선을 끌어 모은 채 전쟁 영웅들을 신고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곧 파시즘의 상징이며, 상공에 글자를 써서 군중들이 따라 읽게 만드는 비행기는 셉티머스가 근본적으로 갈망하는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 비행기 소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런던 하늘은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만큼이나 인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한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울프가 “자필노트”(Holograph Notes)에서 밝히듯이 “강렬하게 모든 극단적인 느낌을 경험하며 항상 인간사 밖에 머물러야 하는”(Transue 100 재인용) 셉티머스는 외적 실체에 자신의 내적 비전을 투사하는, 즉 자신의 내적 고통을 감각에 의한 인식세계에 주입시키는 정신분열증 환자이다. 스스로 ‘영원한 수난자’이며 ‘속죄양’이고 ‘예언자’인 셉티머스를 홈즈 의사(Dr. Holmes)의 지시에 따라 외부 사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부인 레지아는 역설적으로 항상 그의 생각을 오히려 방해만 하는 존재가 된다. 작가는 인간 삶의 국외자이며 주변인의 상징인 셉티머스를 통해 소리들 사이의 공간, 즉 침묵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소리들 사이의 공간은 소리들 만큼이나 의미가 있었다.”(22) 이것은 남성중심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여성 작가가 의도하는 침묵의 서술 효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전쟁에서 보고 겪은 잔인한 인간성이 셉티머스로 하여금 사랑하던 상관 에반스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못하게 하였으며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그의 이런 절망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면제나 처방해주는 의사 홈즈는 인간의 정신적인 상호교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상점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실력으로 기사 작위에 오른 ‘정신의 구제자, 과학의 사제’인 윌리엄 브래드쇼 경(Sir William Bradshaw) 역시 비인간적인 기계와 같은 인물로, 인간영혼에 대한 이해심이 전혀 없이 영혼의 사제직의 찬탈자인 셈이다(Marder 49). ‘균형의 여신’(Goddess of Proportion)의 사도인 그는 단지 과학과 관습만을 존중하여, 셉티머스처럼 정상적으로 주변의 인간 삶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들을 세상과 완전 격리시켜 친지나 서신 왕래를 금한 고독과 침묵 속에 요양시

킨다. 따라서 그들의 사고를 정지시키고 체중만을 늘려놓음으로써 인간 자율성을 파괴하고 그릇된 평정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영국을 변형시키고, 동료의사의 존경을 받고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울프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한 인간들에 대해 부패한 영국 사회가 몰인정함을 조롱한다. 마리아 디바티스타(Maria DiBattista)가 지적하듯이 흠즈나 윌리엄 경이 대변하는 사회는 어떠한 저항이나 출구도 없는 전체주의적 사회형태이다(DiBattista 60). 그러나 그의 시골 요양원의 지치고 친구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환자들은 경찰과 사회의 힘까지 동원시킬 윌리엄 경의 균형과 개종의 의지에 탐식 되어 간혀버린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그의 능력이 ‘결단력과 인간애’의 결합으로 인정됨은 사회규범과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일례이다. 따라서 브래드쇼 경이 사는 할리(Harley)가의 시계들은 시간을 조각내고 유월의 하루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권위를 지지하고 균형감각의 우월성을 지적하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묘사 된다(102).

햇빛의 명암의 움직임을 거실 소파에 누워 바라보는 셉티머스는 허마이오나리(Hermione Lee)가 지적하듯이 파도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상상 속에서 클러리서가 옷을 꿰매며 느꼈던 내적 감정을 재 경험하며,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Lee 110).

그의 손은 의자 등받이에 놓여 있었다. 그가 해업치고 물 위에 떠다닐 때 그의 손이 파도 꼭대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러는 동안 멀리 해변에서 그는 개가 짖고 또 짖는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두려워 말라. 육신 안의 마음이 말한다. 더 이상 두려워 말라. (139)

따라서 잔인한 인간성 때문에 종종 스스로 ‘불 속에 떨어지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셉티머스는 피터즈 부인(Mrs. Peters)의 모자를 만드는 부인과 오랜만에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몇 주 만에 부부만의 정다운 담화를 나누며 남편의 디자인 지시에 따라 만든 피터즈 부인의 모자는 그들에게 최상의 걸작품이 되며 레지아는 강한 행복을 느낀다. 행복 속에 남편과 거침없이 상호교감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레지아는 과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젊은 때’와 같은 셉티머스와 즐겁던 시절을 상기하며, 남편을 따라 시골 요양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셉티머스에게 흠즈나 윌리엄 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후 최

대의 기적이며 승리로 묘사된다(148). 꽃피는 나무와 같은 레지아는 인간의 잔인성에 대항한 여성의 사랑의 승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잠시 위안을 얻은 셉티머스는 자신을 데리러 온 야수 같은 홈즈를 피해 몸을 유리창 밖으로 던져버린다. 셉티머스의 죽음은 그의 의식을 강탈하고 영혼을 구속하는 써리(Surrey) 정신병원에 감금하려는 권위적인 학정들로부터의 도피로서, 클러리서가 다락방에서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최후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셉티머스를 자살로 몰고 간 삶의 찬탈자인 홈즈는 그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잠들게 하여 신고 나가며, 레지아 또한 잠재워 버린다.

꽃을 사 가지고 집에 돌아온 클러리서는 웅접실이 납골당처럼 싸늘함을 느끼며 속세를 떠난 수녀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나, 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는다. 따라서 안락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해주는 남편에게 무언가 보답하고자 하던 클러리서는 브루튼 여사(Lady Bruton)가 오찬에 리처드만 초대한 사실에 낙담한다. 이어서 작가는 18세기 풍자 문학 전통인 의사 영웅체로 클러리서의 상심에 공감하는 하녀 루시(Lucy)가 그녀의 양산을 마치 여신이 전쟁터에서 사용한 성스러운 무기처럼 다루는 모습을 묘사한다(30). 이것은 남성중심 세계에서 겪는 소외감으로 인한 고통에 대적하는 클러리서의 마음자세를 과장시켜 상징화한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셰익스피어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구절을 읊조리는 클러리서는 무감각한 틀에 새겨진 시계판 같은 브루튼 여사의 얼굴을 상기한다. 생명이 쇠퇴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그녀의 얼굴은 클러리서에게 시간의 흐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준다. 젊은 시절 부어톤에서 느꼈던, 잠수부가 잠수하기 직전의 긴장감 같은 삶에 대한 흥분감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갑자기 쭈글쭈글 늙어 오그라진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사로잡는다. 따라서 퇴각하는 수녀나 탐을 탐색하는 어린아이처럼 다락방에 올라가는 클러리서의 모습은 ‘처녀성’과 같은 ‘영혼의 개인적 자유’, 즉 내적 자아를 소중히 보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녀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락방은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일종의 모태로의 퇴행이며, 그녀가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기만의 방’이다.

클러리서는 과거 한때, 피터처럼 자신의 영혼을 간섭하지 않는, 여성들만의 순수한 사랑의 황홀감을 경험한 바 있다. 샬리(Sally)와 사랑의 환희 속에서 클러리서는 “하나의 광채, 산화철 가루 속에서 타고 있는 성냥불, 거의 드러난 내적

의미”(32)를 접하는 계시의 순간을 가졌었다. 클러리서는 셸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순수하고 성실했음을 깨달으며, 이는 남성에 대한 감정과는 달리 오직 여자들에게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이었음을 느낀다. 즉 상호 독자적인 개체성을 파괴하지 않는 같은 여성이라는 단결감과 더불어 언젠가는 헤어지리라는 예감에 “그들은 항상 결혼은 하나의 재난이라고 말했다”(34). 따라서 남성중심 권위주의 사회의 정치가인 리처드와 결혼한 클러리서는 현재 영혼의 처녀성을 지키고자 점점 좁아드는 침대나 반쯤 타다 남은 토막 초만 있는 다락방으로 대변되는 소외된 삶을 영위한다. 부어톤에서 만찬에 흰 옷을 차려입고 셸리를 만나러 가던 클러리서의 심정은 『오텔로』(*Othello*) 2막 1장에서 데스데모나(*Desdemona*)를 신부로 맞이하려는 오텔로(*Othello*)의 흥분된 마음에 비유된다. “만약 지금 죽는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는가?” 죽음만이 사라지는 열정의 순간을 보존하리라는 클러리서의 생각은 셉티머스의 죽음의 순간을 연상하는 장면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셸리와 입맞춤하던 종교적 황홀감의 순간에 피터 월쉬의 방해는 “감감한 어둠 속에서 화강암 벽에 얼굴을 부딪치는 듯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느낌을 주었다”(36).

방해자인 피터를 생각하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클러리서는 과거 셸리와 사랑의 열정 후 30여 년 동안의 삶이 퇴적된 자신의 현재 얼굴을 거울에 비춰본다. 거울에 나타난 창(槍) 같은 분명한 얼굴 모습은 순전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민 하나의 중심이며 다이아몬드 형상임을 그녀는 깨닫는다. 즉 현재 클러리서의 외적인 모습은 남성 세계에서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꾸민 ‘완벽한 안주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인위적인 불빛에서는 빛을 발하나, 햇빛 가운데서는 색채를 잃는 그녀의 초록색 드레스와 유사성을 지닌다. 이러한 현실의 델러웨이 부인은 하녀 루시에 의해 “은기(銀器)의 마님, 리넨의 마님, 도자기의 마님”이며, “메리(Mary) 공주”로 표현된다. 클러리서의 공허한 내적 삶에 대조되는 화려한 외부 생활의 풍자적인 묘사는 독자에게 그녀의 이중적인 삶의 고통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클러리서가 앉아서 드레스를 꿰매는 장면은 단연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한 시적이며 회화적 표현기법의 압권이다. 루시오 루오톨로(*Lucio Ruotolo*)가 지적하듯이 예술적 움직임 속에서 삶의 격정이나 회의가 사라진 만족감을 누리며 클러리서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Ruotolo*, 157). 그러나 ‘정조를 지키려는

처녀'처럼 방문객에 대해 드레스를 감추는 클러리서를 사무엘 리차드슨(Samuel Richardson) 소설의 여주인공과 같은 이름으로 호칭함에서 독자는 다분히 울프의 고의성을 감지할 수 있다. 즉 정조를 지키려고 애쓰다 결국 죽음을 택하는 클러리서 할로우(Clarissa Harlowe)는 가부장 사회에서 결혼 후에도 여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클러리서 패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클러리서는 항상 비판적이며 영혼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려하는 피터가 자신의 정신적 불안감의 방어책으로 갖고 다니는 호주머니 칼에 대해 그녀의 바늘로 대적하는 자세를 취한다. 진 와이어트(Jean Wyatt)와 미노우-핑크니가 지적하듯이, 피터의 호주머니 칼은 클러리서의 영혼을 침범하여 그녀의 자율적 의지를 말살하고자하는 남성의 성적, 정신적 위협의 상징이다(Wyatt 446, Minow Pinkney 68). 그녀는 잘라내는, 즉 단절을 가져오는 피터의 칼과 달리, 분리된 부분을 연결시켜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어 내는 여성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바늘을 무기 삼아 피터로부터 자신의 현재생활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클러리서의 현재 삶의 모습을 직시하고 나온 피터는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를 주저하는 안주인의 음성” 같은 성 마아가렛(St. Margaret) 성당의 종소리를 클러리서와 일체화시킨다. “과거에 대한 슬픔”과 “현재의 근심”(49)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종소리는 클러리서 자체가 되어, 현재 그녀의 권태와 고통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터는 마지막 종소리를 조종(弔鐘)소리로 느껴, 그녀의 죽음을 연상한다(50). 압제적인 빅벤의 종소리와 달리, 분명하지 않고 망설이는 듯한 성 마아가렛 성당의 종소리는, 레이첼 보울비(Rachel Bowlby)가 지적하듯이, 클러리서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애매한 태도, 즉 남성중심의 사회 문명의 안팎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반영한다(Bowlby 92). 완벽한 안주인 역할이나 하는 클러리서의 ‘영혼의 죽음’을 비난하는 피터는 사실 자신의 불안한 현재 삶과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데서 오는 공허감을 느끼며, 남성중심 영국 상류사회에 호감을 갖는 인물이다. 동성들과의 골프나 브리지 게임을 좋아하며 남성 세계에 살면서도, 여성들과의 사교를 즐기는 피터는 행동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자신만의 고통을 즐기면서도 지극히 타인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물이다. 따라서 피터는 항상 클러리서와 같이 강인하고 창조적 활력을 지닌 여성을 갈망하며, 여성의 사랑에 대해 질투심이 강한 그의 태도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여성의 생명력을 소진시키는 남성상을 대표한다. 피터의 런던에서의 현재 삶은 사실상 클러리서와의 과거를 회상하는 삶이며, 그는 머

칠 동안 인도에 두고 온 데이지(Daisy) 생각을 전혀 안 한 채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클러리서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인 피터를 거부하고, 독창적인 상상력이나 명민함은 없으나 요령 있는 현실감을 지닌 리처드와 결혼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과 같으므로 짐작은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지 말아야 한다”(75)는 리처드는 셀리에에게 “클러리서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세속적인 면을 조장하여 한낱 주부로 만들어 버릴 소위 완벽한 신사”(75)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따라서 어디서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여성만의 천부적 소질을 지닌 클러리서는 현재 피터에게 자신의 재주나 견해를 버린 채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결혼생활의 비극을 보여주는 인물로 나타난다(77). 사실 클러리서는 가장 재능 있던 자매 실비아(Sylvia)가 아버지의 실수로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죽은 후 “인간은 침몰하는 배에 묶인 운명이며,”(77) 인생이란 부질없는 웃음거리라고 생각하는 회의론자가 되었다. 따라서 피터에게 투명체인 듯하나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인 클러리서는 비극적 삶에 대한 나약한 인간의 자세로서 짐작은 숙녀 같은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신(神)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도 비난할 바 없다고 생각하여 “선을 위해 선을 행하는”(78) 자세로 무신론을 택하게 된 클러리서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즐기는 삶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 즉 클러리서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의 생존전략으로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타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파티를 열어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수행하며 즐기는 것이다.

클러리서의 소외감과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킨 브루튼 여사는 귀족 계급 사회의 일원으로 그녀의 조상인 사진 속의 장군들처럼 풍채가 좋으며, 사람 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갖는 남성화된 여성이다. 노년에 오는 자신의 율적인 감정을 쏟기 위한 방편으로, 즉 간혀 있는 이기심을 발산시키기 위해, 브루튼 여사는 좋은 가문의 젊은이들을 캐나다로 이주시켜 전망 있는 활동을 하게 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는 한 구절도 읽은 적이 없는”(105) 그녀는 자신의 이주계획을 글로 표현할 수 없음을 여성성의 무익함으로 탓하며, 그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인 남성의 언어 구사력에 무한한 찬탄을 보낸다(109). 따라서 휴 휘트브레드(Hugh Whitbread)가 작성한 『타임』(Time)지 기고문은 브루튼 여사에게는 걸작이 되며, 그녀는 휴에게 ‘나의 수상!’ 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즉

그녀는 남성다운 용기와 권력과 지위와 수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남성중심 귀족사회의 무력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올프는 브루톤 여사의 오찬 장면을 의사 영웅체로 묘사함으로써 작가의 풍자의도를 감지하게 한다. 또한 브루톤 여사와 클러리서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유대감과 동료애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만이 느끼는 소외감을 공유하게 한다. “클러리서는 어떻게 지내나요?”라는 브루톤 여사의 인사말은 남성적인 오찬 파티 아래로 흐르며 브루톤 여사와 델러웨이 부인을 결합시키는 어떤 여성적 동료애의 인식을 의미했다”(106). 사실 각자의 독자성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클러리서는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존재하기 마련임을 인정한다. “사람들 사이에는 존엄성이 있다. 고독. 심지어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간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존중해야 한다”(120). 따라서 클러리서는 남편의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중시하며 현실의 삶을 사랑하여, 남편이나 피터가 비난하는 파티를 즐기는 것이다. 항상 삶의 위협과 인간의 필멸성을 의식하는 그녀는 더욱 삶의 순간순간을 사랑하며 이런 삶에의 헌신을 위한 의식으로 타인을 강요함이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파티를 연다. 글을 쓸 줄도, 피아노를 칠 줄도 모르며, 여태껏 적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녀에게 있어서 파티는 램지 부인의 파티와 마찬가지로 인간 삶을 조화롭게 창조하여 보존하는 여성의 천부적 재능을 구현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못생기고 가난해서 한번도 행복을 누린 적이 없이 속아만 살아왔다고 느끼는 킬먼은 클러리서의 생활을 사치스런 유한계급 여성의 삶으로 경멸한다. 킬먼은 자신의 비유처럼 타이어가 없는 차바퀴처럼 돌맹이마다 자신을 덜거덕거리게 하는 삶의 현실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파괴적인 이기심을 지닌 일그러지고 뒤틀린 모습의 독자적 여성이다. 그녀는 제인 에어처럼 고아출신의 가난한 여주인공이 로체스터(Rochester)같은 남성에게 삶의 활력을 주며 자신의 자주적 삶을 이룩해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에 대한 탐욕스런 소유욕을 지니고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돌비 양(Miss Dolby)의 학교에서 집안이 독일 계통이라 하여 쫓겨난 킬먼은 쓰라림에 불타는 마음의 평정을 종교에서 찾는 광신자이다. 따라서 클러리서가 슬픔이나 기쁨을 모르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킬먼은 하나님의 뜻, 즉 종교적인 승리에 의하여 그녀의 영혼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고자 한다. 개종한

여신의 사도와 같은 킬먼의 태도는 클러리서에게 그녀를 항상 비판하던 피터의 사랑과 킬먼의 종교가 보여주는 신성한 개인 영혼의 파괴성을 인식하게 한다. “사랑과 종교! ...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들... 그러나 사랑과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영혼의 개인적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 밍살스런 킬만은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126-27).

파티 도중 잠시 빠져 나온 클러리서는 창가에서 맞은편 집 노부인이 타인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종교와 사랑이 줄 수 없는 기적과 신비를 감지한다. 울프의 저서 『자기만의 방』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침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방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클러리서는 노부인을 통해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 방이 하나 있었다. 저기에 다른 방이 있었다. 종교가 그것을 풀었는가? 아니면 사랑이?”(127) 미노우-핑크니의 지적처럼 이 노부인은 다락방에 있는 클러리서 자신의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가부장사회 여성의 독자성과 동시에 소외감을 상징한다(Minow-Pinkney 69). 「병든에 관하여」(“On Being Ill”)라는 에세이에서 “각자에게는 처녀림이 있다. 새들의 발자국조차 알려지지 않는 눈발이 있다”(“On Being Ill” 14)고 주장하듯이, 울프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기 쉬운 상황에서 자신만의 자아를 위한 공간이 여성에게도 필요함을 역설한다.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자 하는 클러리서와, 외적인 삶에 초연히 본질적이고 외로운 삶을 영위하는 노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울프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한다

『작가의 일기』에서 울프는 인간의 많은 의식(意識) 상태들 중 파티 의식을 탐색하고자 하며, 여자 마법사 시빌(Sybil)의 의식과 같은 파티 의식은 어떤 실질적인 것이므로 깨뜨리지 말고 계속 유지하며 함께 협력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A Writer's Diary* 74). 사실 파티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는 그녀의 노력은 그녀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하고 그녀를 총계 꼭대기에 박힌 기둥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파티를 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며, 파티에서는 인간 내면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170-71). 즉 클러리서에게 있어서 타인이 되는 느낌을 유발시키는 파티는 일상생활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며, 속박된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을 한곳에 모아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헌신의 의미를 지닌 클러리서의 파티에 부어톤에서 그녀를 삶의 환희로 전율시키던 샐리가 우연히 참석함으로써, 클러리서의 파티는 과거의 모든 추억을 지닌 사람들의 회합 장소가 된다. 또한 수상을 비롯해, 많은 졸작을 그려낸 화가나, 속물근성을 지닌 기이한 성격의 피짜 교수, 벡타이나 조끼를 입지 않은 채 빨간 양말을 신은 삼류시인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그녀 주변의 상류계급과 서민계급 사람들이 한곳에 모인 파티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 사회 체제에 대한 울프의 비판의 장소가 된다. 명사인척 보이려고 애를 쓰는 영국 사회의 상징인 수상은 가게 계산대 뒤에 서서 비스킷이나 파는 불쌍한 사나이의 모습에 비유되는 아이러니를 보인다(172). 또한 지적 토론이나 대화보다는 육체적 쾌락활동을 즐기는 젊은 귀족을 대표하는 게이튼(Gayton)과 낸시 블로우(Nancy Blow)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크리켓 경기나 사촌이나 영화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별 대화 없이 서있는 모습은 무미진조한 감성을 지닌 귀족출신 젊은이들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어라는 엄청난 자원, 그것이 결국 느낌을 전달하도록 부여하는 힘은 ...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숙한 채로 굳어버릴 것이다.”(178) 알렉스 즈월드링(Alex Zwerdling)이 지적하듯이 이들은 인간간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갈망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셉티머스나 파티를 통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클러리서와는 달리, 상호 교감의 통로를 석화시켜 버린 젊은 귀족들의 모습이다(Zwerdling 71).

피터에게 죽은 모습으로 상상되던 클러리서의 고모인 미스 패리는 80세가 넘어 파티에 참여하며, 그녀 눈에 생기를 돌게 하는 인도에 대한 현재 추억은 인도 주민과 자연 풍경과 동, 식물에 관한 것이다. 피터에게 삶의 등불 같은 존재인 그녀는 인도주민의 식민지화 정책에만 관심이 있고 조국을 위해서는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 죽을 각오가 된 브루튼 여사와는 대조적인 여성상이다. 대영제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불타오르는 브루튼 여사는 “검은 복장을 한 유령의 보병”(180) 같은 모습이다. 따뜻한 여성성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성이 결여된 브루튼 여사는, 여성답지 않게 단정하지 못한 태도와 대담하고 무모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따뜻함’과 ‘생명력’을 지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샐리와는 정반대로, 킬먼처럼 스스로 남성화된 여성이다. 그럼도 그리고 글도 쓰며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샐리와는 달리, 부르튼 부인은 여성의 독자적 개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전투적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자신을 남성화함으로써 여성으로서

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물이다. 부어톤에서 클러리서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며, 목욕용 스펀지를 가지러 복도를 달리며 거침없이 여성의 벗은 모습을 드러내던 셸리는 아들만 다섯을 둔 모성의 부드러움을 지닌 가정주부가 되어 있다. 그녀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된 남편을 자랑으로 여기며 평범한 중산계층 여성으로서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정치가의 아내로서 클러리서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브루튼 여사에게 이상적인 부인상일 브래드쇼 부인은 인어 같은 모습의 클러리서와는 대조적으로, 공작부인들에게 초대장을 요청하며 짓고 있는 바다사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완벽하게 사리에 맞고 이치에 닿는 충고를 하는 유능한 의사라고 인정하는 윌리엄 경에게 심한 거부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클러리서는 셉티머스의 자살 장면을 상상하며 자신의 옷에 불이 붙고 몸이 타는 듯한 환상적인 죽음을 스스로 체험한다(184). 클러리서는 서펜타인 연못에 동전 한 닢 던진 일밖에 없는 자신을 생각하며, 타락과 거짓말과 잡담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간의 삶에 대해 명상한다(184).²⁾ 클러리서에게 있어서 셉티머스의 죽음은 인간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파괴적 존재에 대한 도전이며, 그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지키려는 반항적 인태도이다.

죽음은 도전이었다. 죽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였다. 사람들은, 신비하게도, 그들을 피하는 중심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친밀함은 멀어져 갔고, 황홀함은 시들었고, 사람은 혼자였다. 죽음에는 포옹이 있었다.
(184)

따라서 클러리서는 자신이 한때 셸리와 환희의 순간에 느꼈던 보물 같은 모델로의 행복을 셉티머스가 죽음을 통해 보존하리라고 생각한다. 클러리서는 인간의 영혼을 강압하고 오직 모욕감만을 주는 윌리엄 경 같은 인간들이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며, 정열을 지닌 인간들을 자살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제레미 호쏰(Jeremy Hawthorn)이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지나친 사랑으로 타인을 하나의 인

2)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관련 단편 중 하나인 「본드가의 델러웨이 부인」에서 장갑을 사러 나온 클러리서는 런던 시내를 걸으며 줄곧 셸리의 시 “아도니스”(Adonais)의 일절인 “세상의 더딘 오염의 병폐로부터”에 대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The Complete Shorter Fiction of Virginia Woolf* 154)

격체로 인정하는 존경심이 결여된 피터와 마찬가지로 윌리엄 경은 ‘성과 사랑’의 결핍으로 적절한 원근을 유지하는 인간관계에 실패한다(Hawthorn 50). 셉티머스의 죽음은 런던이라고 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열정과 본연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셉티머스의 자살은 클러리서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결혼 전 부어톤에서의 삶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실의 불모성을 더욱 강렬하게 상기시켜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이제 파티를 열고 서 있는 자신이 남의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는다(185). 즉 델러웨이 부인이란 이름으로 남편의 보호망 안에서 자신도 다른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상적인 사회적 삶을 살아왔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클러리서는 창가에서, 웃으며 떠드는 파티손님들과는 무관하게, 맞은편 집 노부인이 조용히 홀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각자의 독자적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수젯 헨케(Suzette Henke)가 지적하듯이 “홀로 참아 견디고 창조해내는 여성의 생명력”(Henke 144)을 상징하는 노부인은 클러리서가 자신의 삶에 대한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한다. 그녀는 자살한 젊은 청년과 일체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은 이 오욕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셉티머스만이 자신의 삶을 던져버렸음에 기쁨을 느끼고 파티에 되돌아간다. 스스로 ‘속죄양’이며 ‘영원한 수난자’인 셉티머스의 죽음은 와이어트가 지적하듯이 죽어 가는 신인으로서의 원형적인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클러리서에게 생명력을 부여한다(Wyatt 451). 따라서 그녀는 셉티머스를 통해 죽음을 간접 체험한 후, 인간사회 규범의 한 상징인 시계 종소리에 맞춰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위해 파티에 복귀한다. 이런 의미에서 클러리서의 파티는 그녀 의식의 죽음과 재생을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클러리서가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남성중심 사회에서 셉티머스처럼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으려면, 이중적인 생존 전략을 취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노부인처럼 자신만의 독자적인 고유영역을 지키며, 동시에 ‘여자 마법사’처럼 사람들을 모아 파티를 개최하여 정치가 부인으로서의 위엄과 상냥함을 발휘하여야 한다. “손톱으로 감방의 벽을 긁는 것과 같이 힘든”(192) 인생을 셉티머스처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중년 여성으로서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인 ‘다락방’을 지니며, 강한 모성애를 지닌 가정주부로서 만족하는 샬리는 꽃과 같은 자연에서 위로를 찾는다. 물론 현재와 같은 가부장사회에서는 아직은 미숙하나 직업을 갖기 원하며, 극단적인 킬먼이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따르는 엘리자베스가 독

자적인 새로운 여성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사실이다. 엘리자베스는 『등대로』의 캠(Cam)과 같이 결국 가부장 사회에 굴복해 버릴 수도 있으며, 아니면 릴리 브리스코우(Lily Briscoe)처럼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삶을 구현해 나갈 수도 있다.

울프가 처음에 『시간들』(*The Hours*)이라고 구상하였던 이 소설의 제목을 여주인공의 결혼 후 호칭인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확정지었음에서 보여주듯이(*A Writer's Diary* 56), 남성중심사회의 상징인 언어를 통한 작가의 지속적인 창작 노력은 클러리서의 모호하나 진솔한 삶의 태도를 독자에게 보다 확연하게 전달하는데 있다. 울프는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와 여성적인 가치를 대조시켜 문화보다는 자연적인 것에, 언어보다는 침묵에, 논리보다는 감성에 우위를 부여한다.

클러리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감수성이 강한 피터에게 현현(epiphany)의 상태로 등장하며 『델러웨이 부인』의 결말을 장식한다.

이 공포는 무엇인가? 이 황홀함은 무엇인가? 그는 혼자서 생각했다. 나를 이 상한 흥분으로 채우는 이것은 무엇인가?
클러리서로군.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194)

“왜냐하면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타인들로부터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되던 클러리서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단일개체로서 인식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부어톤에서 샬리와 동성애적 사랑을 나누던 클러리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녀의 영혼의 자유를 침해하던 피터는 공포와 같은 흥분된 황홀함으로 클러리서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식한다. 울프는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독자적인 개체성을 인정할 때 문화와 자연이, 언어와 침묵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가 가능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암시한다. 사실상 이것은 윌리엄 경이 주장하는 ‘균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델러웨이 부인』은 울프가 온갖 굴곡과 샅길로 가득 찬 신비한 정원과 같은 삶에 대한 주인공들의 의식 세계, 즉 그들의 주관적 상태에 가장 깊이 천착하여 그 흐름과 양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작품이다. 따라서 클러리서가 갖는 삶에 대한 환희와 위협의 동시적 느낌은 늘어갈수록 더욱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게 된 작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투영시킨 것이다. 인도에서 오랜만에 돌아와 런던거리

를 걷는 피터는 과거 부어톤에서 클러리서의 고모가 취미로 꽃을 따다가 사전 아래 눌러놓던 것처럼 영국 전체 구조의 변화가 그들 특히 여성들을 내리 누르는 것으로 인식한다(162). 이는 곧 남성의 문화와 언어에 의해서 여성의 언어가 질식 사함을 암시하며, 전쟁이라는 광기와 파시즘으로 구체화된 남성의 지배욕 아래서 여성적 경험은 억눌리고 내면화한다. 이러한 짓눌린 여성 세계와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품화하기 위해, 울프는 전통적인 로맨스 소설 양식을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셀리와 클러리서의 동성애적인 사랑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6월 어느 하루 런던에서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는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델리웨이 부인의 과거 부어톤에서의 삶과 사랑은, 작가에 의해서 주된 이야기 가운데 부수적인 이야기로 표현된다. 이처럼 런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문명과 대조되는 부어톤의 자연, 현재의 척박한 삶과 대조되는 과거의 꿈, 언어와 대조되는 침묵 등은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로만 인정받는 여성의 삶의 억압과 고통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면밀한 서술전략이다. 클러리서 패리라는 여성 본연의 정체성이 부가적인 결가지 구성을 통해서 드러남은, 또한 과거로 굴을 뚫는 과정이라는 글쓰기 방법은, 울프에 의해서 현실 속에 억압되고 내면화되어 있는 여성적 경험세계의 발굴이라고 하는 페미니즘과 맞닿아 있다. 울프의 이러한 글쓰기 전략과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파티를 소재로 한 일련의 단편들에서도 확인된다.

III. 「소개」, 「조상들」, 「하나의 요약」

처음 파티에 참석하여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인 릴리 에버릿(Lily Everit)의 의식을 탐색하는 「소개」는 “젊은 여성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딜레마의 본질”(Baldwin 41), 즉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군림하는 독단적이며 우월감에 젖은 남성의 힘과 노고로 이루어진 문명 사회 속에 위협 당하는 여성의 자아를 묘사한다. 릴리 에버릿은 스위프트 수석사제에 관해 그녀가 쓴 평론이 그날 아침 교수한테 최상의 칭찬을 받은 것을 상기하며, 파티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분신과 같은 그 평론에 관한 생각에만 사로 잡혀 있다. “젊은 사실인 이 평론과 허구인 사교계에 나가는 것”(The Complete Shorter Fiction 184)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릴리는 파티 참석을 위해 섬세하게 꾸며진 눈에 보이는 외적 자아는 단지 표면

일 뿐, 그녀의 평론이 진정한 자아로써 화려한 의상 내면에 금속덩어리처럼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릴리의 의식은 인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파티를 즐기는 델러웨이 부인이 밥 브린슬리(Bob Brinsley)를 소개함으로써 방해받고 위협 당한다. 완벽한 안주인으로 “호의적이며 강렬하고 위압적인”(184) 미소를 띤 델러웨이 부인은 두 청춘 남녀를 소개하며 그들의 얼굴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부드러움과 선함과 신중함과 사랑스런 수줍음 등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며 스스로 감동하고, 아름다운 인간애와 이런 성취를 이뤄내는 자신의 삶이 축복 받았음을 느낀다. 델러웨이 부인과 대조적으로 파티라는 세계에 처음 나와 “놀람과 불안과 방어”(184)의 상태로 구석에 웅크리고 서 있는 릴리는 남성의 위압에 압도당하여 자신이 전에는 결코 생각지도 못한 한갓 나비 같은 존재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여성, 즉 “남자들이 앞에서 절을 하는 연약하고 아름다운 창조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구속받고 제한된 존재, 눈에 수많은 흘눈과 섬세하고 우아한 날개를 가진 나비, 수많은 곤경과 감수성과 슬픔을 가진 존재, 여성”(185)임을 자각한다.

브린슬리를 소개받기 위해 구석으로부터 끌려나와 “기선을 따라가며 인사하는 흔들리는 범선”(185)같이 주춤대며 따라가는 릴리는 부자연스럽게 일부러 꾸민 우아한 태도를 강조하며 걷는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녀는 숲 속에서 누리던 자유와 감미로운 고독을 회상하며, “이 문명, 이 규제된 삶의 방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부드러우나 완강하게 그녀의 목을 조이는 멍에”(186) 같다고 느낀다. 이어서 그녀의 평론이, 최상의 표시로 받은 빨간 별표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지배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이루어 놓은 이 질서정연한 삶을 꾸미고 장식하는 것이 그녀의 일임을 자각한다. “그가 꺾어버릴 장미처럼, 그가 밟고 지나갈 짙게 삼아 마루 위에 그녀의 평론, 그녀의 전 존재를 깔아 놓는 수 밖에 그녀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186-87)라는 구절은 파티라는 사교 모임에 처음 참석한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독자적 개체성을 주장할 수 없는 릴리의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여성을 성공한 남성의 장식품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지배하고 주장하는데 익숙한 밥 브린슬리는 남성이 이룩한 업적이나 문명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을 자랑하는 오만함 및 유희를 즐기듯 파리의 날개를 잡아 뜯는 남성의 이기적 잔혹함

을 보여준다. 익숙한 동작으로 파리의 날개를 등에서 뜯어내는 브린슬리의 잔인함에 안절부절 못하는 릴리는 스스로 날개가 잡아 뜯기는 파리처럼 느낀다. 그의 잔인함에 항거하듯 그녀의 내적 자아, 즉 그녀의 평론이 더욱 튀어나오며 세 개의 별표가 훨씬 밝게 다시 불타 오르나, 명확하고 찬란하게 빛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이다. 날개를 잡아 뜯겨 자유를 상실한 릴리는 브린슬리가 그녀로부터 돌아서 갈 때 공포심을 느끼며 하늘로부터 그녀의 목에 떨어진 문명의 멍에가 그녀를 짓몽갠다. 결국 정원에서 추방당한 이브처럼 또한 이 세상에는 성소도 없고 나비들도 없다는 말을 들은 불쌍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릴리와 무례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밥 브린슬리의 짧은 만남의 상황을 통해, 울프는 남성이 이룬 업적들의 위압적 세계 속에 내면의 자아조차 포기하도록 위협 당하는 젊은 여성의 의식을 예리하고 생생하게 회화적으로 묘사한다.

작품 말미에 릴리는 “그녀의 목을 조이는 멍에처럼 규제된 삶의 방식”인 “문명”이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188)고 생각하는 의지를 엿보인다. 그러나 울프는 이 부분을 괄호 안에 처리함으로써 문명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십여 년 후 릴리는 또 다른 델러웨이 부인이 되어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수행할지도 모르며, 릴리 브리스코우와 같은 여성 예술가로서 타인을 의식함이 없이 자신의 비전을 획득할 수 있다. 울프는 인간 삶과 사회가 파티에서의 한 순간에 집약된 이 단편을 통해, 남녀 양성이 평등한 사회에 대한 그녀의 회원을 릴리의 신속한 생각의 움직임과 순간의 고통 묘사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조상들」은 발란스 부인(Mrs Vallance)이 델러웨이 부인 파티에 참석한 잭 렌소(Jack Renshaw)라는 젊은이의 크리켓 경기에 대한 언급에, 존경받는 부모 밑에서 보냈던 행복하고 안전하고 충만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과거의 시대와 어긋나게 이루어진 불만스런 현재의 삶을 명상하는 단편이다. 고인이 된 부모와 자신이, 현재 파티에 참석한 “상당히 멋지나 어리석은 젊은이들”(181)과 너무도 다르다는 발란스 부인의 내면 의식은, 『델러웨이 부인』의 클러리서가 처녀 시절 부어톤에서 즐거웠던 삶과 런던의 척박한 삶을 대조하듯이, 고향 스코틀랜드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즐기던 어린 시절의 삶과 창문 밖으로 집들만 보이는 답답한 런던의 현재 삶을 비교한다. 교양과 학식이 있는 부친과 그 친구들로부터 “일생에 가장 멋진 대화”(181)를 듣고 자연에 최대의 열정을 기울이는 모친에게서

아름다움에 대한 경배를 배운 발란스 부인은 파티에서 여성의 드레스나 크리켓 경기 같은 사소한 것에만 관심 갖는 젊은이들을 보게된다. 따라서 그녀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그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하는 과거야. 나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야. 나를 이해했던 사람들도 단지 그분들이야”(182)라며 스스로 이들로 부터 분리되어 초연하게 과거에 존재하고자 한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인 정신적 교류를 무시하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발란스 부인은 미망인이 된 후 “과거를 꿈꾸면서, 자신들보다 오히려 유명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던”(182) 자신의 모친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셸리의 작품을 전부 읽고 부친 앞에서 암송하며 순수하고 착하고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재능을 지녔던 십대에 인생은 ‘이 파티’처럼 보였으나, 일생동안 지독한 고통을 겪은 현재의 발란스 부인은 매우 강하고 거만하고 냉소적인 인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결미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거의 경멸하듯이 내뿜는 발란스 부인의 웃음은 파티에 참석하여 단지 젊은 남성들의 시시한 잡담이나 듣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비전을 성취한 삶을 살 수도 있을 자신의 현존재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다.

델러웨이 부인 파티관련 단편들 중 전체적으로 요약의 의미를 갖는 작품 「하나의 요약」의 주인공 사샤 래덤(Sasha Latham)은 「소개」에서 드레스로 꾸며진 외양과 평론으로 존재하는 내적 자아를 구분하는 릴리 에버릿처럼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 자아와 내면의식의 대조를 보이는 인물이다. 큰 키에 매력적이며 무척 위엄 있어 보이는 태도를 지닌 래덤 부인은 사실 처음 소개받았을 때 거의 아무 말도 못하며 어색해하고 수줍어하는 성격이다. 본래 겸허하여 타인에 대한 깊은 동경을 품는 사샤 래덤은 인류 최상의 업적과 같은 파티를 개최하는 델러웨이 부인의 창조적 능력에 찬양과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델러웨이 부인의 정원에 나와 앉아 자신과 달리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들에게, 즉 자신은 배제되어 있는 인간 사회에 무언의 갈채를 보낸다. 스스로 야생의, 그러나 완전한 통제력을 지닌 동물처럼, 마치 수사슴처럼 느끼며 걷는 사샤 래덤은 파티가 문명 최고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는 환영에 빠져, 파티 참석자들이 “야음과 소택지를 극복한 승리자”이며 “모험대의 대원으로서 위험에 도전하여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209)로 찬미한다.

그러나 정원 담 너머로 광대하고 무심하고 비인간적인 런던의 모습, 일상적

인 인간 삶의 현실을 보며 순식간에 이러한 환상은 사라진다. 파티가 열리고 있는 앤 여왕조 양식의 중후한 저택은 배수시설과 목공 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며, 이 파티는 “단지 야회복을 입은 사람들”(210)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금박과 위엄의 옷’을 입고 있던 정원의 나무도 평범한 야생나무로 변해버린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일까 자문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영혼은 본래 짝지어지지 않은 “한 마리의 선녀조, 나무 위에 초연히 앉아 있는 한 마리의 새”(210)라는 자각이 든다. 그러나 파티에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버트럼 프리처드(Bertram Pritchard)가 말하는 순간, 이 새는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에 놀라 날아가 버린다. 무한한 대기 속으로의 이 짝 없는 새의 비상은 그녀의 영혼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 문명 세계의 위압과 위용으로부터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고통을 훌훌 털어 버린 자연 속으로 자유롭게 탈출함을 암시한다. 즉 사샤 래덤의 외적 자아인 몸은 파티장으로 들어가나 그녀의 내적 자아인 고립되고 고독한 영혼은 자신만의 세계로 자유를 향해간다.

이 세 단편들은 『델러웨이 부인』과 마찬가지로 파티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파티라는 열린 공간에서 참여와 공유의 순간에 여성인물들이 보여주는 소외감과 분열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억압적 가부장 사회 현실에서 자기 충족감을 찾지 못하는 여성인물들의 난관을 보여준다. 이들 작품에서 구사하는 울프의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와 이를 통해 여성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서술기법은 여성의 경험을 담지할 수 있는 여성만의 고유한 창작 태도라고 볼 수 있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울프는 남성 지배적 문화와 역사 속에서 여성이 겪는 소외감과 고통을 심화시켜 표현하기 위해, 남성 위주의 전통적인 로맨스 소설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여성의 독특한 경험세계는 분명히 남성의 세계와는 다르며, 따라서 여성의 독자적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울프의 생각은 곧 소설 형식에 대한 성찰로 발전한다.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을 쓰기 직전에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를 읽고 있었는데, 그녀는 조이스의 의사 서사시적 세계는 역시 남성 중심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

이라 생각하고, 조이스의 작품에 그려진 스티븐(Stephen)과 블룸(Bloom) 간의 남성적 연대성을 자신의 작품에서는 클러리서와 샬리 시튼의 여성적 연대감으로 대체시켜 평이한 하루 동안의 삶의 과정을 작품화하고 있다. 울프가 처음에는 클러리서가 죽는 것으로 소설을 계획했다가 집필과정에서 셉티머스가 자살하는 것으로 구성한 이유도 남성의 자아성취를 위해 여성이 희생되는 전통적 로맨스 플롯 구성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여성적 경험세계를 표현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델러웨이 부인』이나 단편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리적 전개와 갑작스런 단절, 삽화적이고 환원적인 구성, 문장 중간에 하이픈이나 괄호를 사용하는 표현 기법 등은 한결같이 여성적 경험을 작품화하기 위한 울프의 글쓰기 전략의 일환이다. 남성 지배적 사회에 쉽게 부합할 수 없는 여성적 삶의 복잡성은 양의성을 띠는 파티라는 공동체 모임에서 절실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규범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서의 파티는, 역설적으로 그곳에 참석한 인물들의 고립되고 불만스런 내면으로의 여행을 위한 촉매로 작용한다.

(충주대)

인용문헌

- Baldwin, Dean R. *Virginia Woolf: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89.
- Bell, Quentin. *Virginia Woolf: A Biograph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 Bowlby, Rachel. *Virginia Woolf: Feminist Destin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988.
- DiBattista, Maria. *Virginia Woolf's Major Novels: The Fables of An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Hawthorn, Jeremy.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A Study in Alienation*. London: Sussex University Press, 1975.
- Henke, Suzette A. "Mrs. Dalloway: The Communion of Saints." *New Feminist Essays on Virginia Woolf*. Ed. Jane Marcus. London: Macmillan, 1981. 125-47.
- Jensen, Emily. "Clarissa Dalloway's Respectable Suicide." *Virginia Woolf: A Feminist Slant*. Ed. Jane Marcu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162-79.
- Lee, Hermione.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London: Methuen, 1977.
- Marder, Herbert. *Feminism and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McNichol, Stella. *Virginia Woolf and the Poetry of Fiction*. London: Routledge, 1990.
- Miller, J. Hillis. *Fiction and Repeti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2.
- Minow-Pinkney, Makiko. *Virginia Woolf and the Problem of the Subject*. Brighton: Harvester Press, 1987.
- Richter, Harvena. *Virginia Woolf: The Inward Voy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Rose, Phyllis. *Woman of Letters*. London: Pandora, 1986.
- Ruotolo, Lucio. "Mrs Dalloway: The Unguarded Moment." *Virginia Woolf*:

- Revaluation and Continuity*. Ed. Ralph Freed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141-60.
- Transue, Pamela J. *Virginia Woolf and the Politics of Styl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6.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London: The Hogarth Press, 1978.
- _____. *A Writer's Diary*. Ed. Leonard Woolf.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3.
- _____. "Montaigne." *The Common Reader*. 1st Series. London: Hogarth Press, 1975.
- _____. *Mrs. Dalloway*.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25;1990.
- _____. *Mrs. Dalloway*. New York: Modern Library, 1928.
- _____. "On Being Ill." *The Moment and Other Essay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48.
- _____. *The Complete Shorter Fiction of Virginia Woolf*. Ed. Susan Dick. London: A Harvest Book, 1989.
- Wyatt, Jean M. "Mrs. Dalloway: Literary Allusion as Structural Metaphor." *PMLA*. 88(1973): 440-51.
- Zwerdling, Alex. "Mrs. Dalloway and the Social System." *PMLA*. 92(1977): 69-82.

Abstract

Women's Conflicted Consciousness in the Patriarchal Society and Woolf's Writing Strategy

Myung-Hee Jin

Virginia Woolf regards the harmonious unity of an individual life and community as an ideal state in life, just as she stresses the great artist should have an androgynous mind unimpeded by any consciousness of sex. This is very similar to Nietzsche's delicate balance of the Apollonian and the Dionysian in art, that is, the harmony of the principle of individuality and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Clarissa's ambiguous attitude to life as Woolf's intentional writing strategy for an alienated and ignored female identity in a male-dominant society, not as an allegedly decisive failing in the writer's characterization.

Mrs. Dalloway is an outstanding work which explicitly depicted the reality of contradictory self of the upper class woman, who assumed an ambivalent attitude for her own existence in the established culture and society in which women remain inferior outsiders. Clarissa leads her comfortable life of appearance as a perfect hostess giving a party like a sybil, and also ensures the inner privacy of her soul in an attic, 'a room of one's own', like an old woman in the room opposite going to bed with no consciousness of the eyes of others. Woolf reverses here the traditional plot needing female sacrifice for male development, by transferring to Septimus the death she originally imagined for Clarissa. And Clarissa narrowly escapes the schizoid fracture by experiencing in the midst of her party the ritual death of Septimus Smith, her double.

Accordingly,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inner consciousness of suffering female participants in the similar situations and other occasions of parties given by

the same Mrs. Dalloway in Woolf's three short stories, "The Introduction" "Ancestors" and "A Summing Up"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vivid emotional conflict of Lily Everit who has participated in the party for the first time and suffered like a fly being torn off wings by a proud and destructive man. While in "Ancestors" Mrs. Vallance reflects on her delightful past days with her parents and expresses the dissatisfaction with her present being lost her potential and vision, through her resentment of the ugliness of London and the trivial chat at Mrs. Dalloway's party. In "Summing Up" Woolf represents the existential alienation and the splitting of consciousness by concluding Mrs. Latham's vision of the soul as a lone bird in a disenchanted and detached moment from the illusion of the worldly life.

A party brings about a catalysis to the inner journey for solitary and conflicted female characters in the patriarchal society. And in the party which is given as an open space for free communication and spiritual communion of all participants, Woolf's sensitive women ironically experience her part in and departure from the male oriented society. In fine, Woolf's party is the very symbol for the wished-for wholesomeness of the soul and society in the departmentalized and schizophrenic age of high modernism.

■ Key words : Women's Conflicted Consciousness, Woolf's Writing, Party, Ambivalence, Patriarchal Society (여성의 분열된 의식, 울프의 글쓰기, 파티, 양의성, 가부장 사회)